

## 자생 털부처꽃의 지피용 재배를 위한 최적 조건

장보국<sup>1</sup>, 연수호<sup>1</sup>, 조주성<sup>2</sup>, 이철희<sup>2\*</sup>

<sup>1</sup>충북대학교 축산·원예·식품공학부 생물건강소재산업화사업단 대학원생,

<sup>2</sup>충북대학교 축산·원예·식품공학부 생물건강소재산업화사업단 교수

### Optimal Conditions for Groundcovers Cultivation of Korean Native *Lythrum salicaria* L.

**Bo Kook Jang<sup>1</sup>, Soo Ho Yeon<sup>1</sup>, Ju Sung Cho<sup>2</sup> and Cheol Hee Lee<sup>2\*</sup>**

<sup>1</sup>Graduated Student, Brain Korea 21 Center for Bio-Resource Development, Division of Animal, Horticultural and Food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up>2</sup>Professor, Brain Korea 21 Center for Bio-Resource Development, Division of Animal, Horticultural and Food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는 자생 털부처꽃의 실용적인 산업화를 위해 지피용 재배조건을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실험 재료는 털부처꽃의 종자를 2019년 4월말에 파종하여 8주 후 얻어진 유묘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식재용기(2, 3, 4치 비닐포트), 토양종류(원예상토 단용 및 마사토:피트모스 혼용토(v/v; 2:1, 3:1), 파종용기(162, 200, 288셀 플러그트레이) 및 파종립수(1, 2, 4립)를 달리하였으며, 정식 후 처리구간의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마사토와 피트모스 혼용토는 9L당 퇴비 1L를 혼합하여 원예상토와 비교하였다. 대조구는 원예상토가 충전된 3치 비닐포트에 정식된 유묘와 셀당 1립이 파종된 200셀 플러그트레이의 유묘를 사용하였다. 유묘는 처리별로 정식한 다음 충북대학교 유리온실에서 12주간 재배되었으며, 매일 2회(5분/1회) 미스트 관수되었다. 연구결과, 털부처꽃의 유묘가 정식된 비닐포트는 포트의 볼륨이 클수록 생육이 우수한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4치 비닐포트는 동일한 재배기간 동안 경직경(3.61 mm), 측지수(28.2 ea), 엽수(311.6 ea), 근장(22.1 cm) 및 생체중(7049.9 mg)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토양종류는 원예상토를 단독으로 사용한 처리구의 생육이 가장 우수하였다. 반면 마사토와 피트모스 혼용토는 재배가 지속되면서 생육이 저조하여, 농업용 퇴비로는 양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파종립수가 증가할수록 각 개체의 생육은 감소하였으나, 4립 파종구의 유묘는 정식 후 풍성한 볼륨을 나타냈으며, 지피용 재배목적에 부합하였다. 플러그트레이는 볼륨이 작아질수록 초장과 생체중이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전반적으로 생육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주요어:** 관상식물, 부처꽃과(Lythraceae), 야생화, 천굴채(千屈菜)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신 관상식물(new ornamental crops) 고품질 재배 기술 개발, KNA 19-C-53”의 사업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E-mail:leech@chungbuk.ac.kr, Tel: +82-43-261-2526